



두려워하지 말고 그분과 함께 제자리를 찾읍시다

평신도들에게 고유한 소명과 사명을 되새기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다짐하고 격려하는 선세 번째 맞는 평신도 주일을 축하합니다.

평신도의 소명과 사명이란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세속 안에서 누룩과 소금의 역할을 하여 우리 가정과 직장 과 사회가 하느님 보시기에 좋게 바뀌도록 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직장을 잃었고, 청년들은 직장을 구하지 못해 실의에 차 있습니다. 가난한 이들은 설자리가 줄어들고, 비대면과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면서 기존 방식의 친교와 소통이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따라 신자들의 성사 생활과 공동체 활동도 커다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은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다른 한편으로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올바른 선택과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걱정하거나 두려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마태 14,27) 하고 격려하시는 주님의 도움에 힘입어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이 초래한 이 엄중한 상황을 능히 극복해 나갈 것이며,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최근에 발표한 회칙 「모든 형제들」에서 온갖 장벽과 경계를 넘어서는 진정한 형제애와 사회적 우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며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계십니다.

아울러 내년에 탄생 200주년을 맞는, 짧은 생애를 살면서도 불굴의 신앙과 희생적 사랑으로 복음적 덕행의 본보기가 되신 첫 한국인 사제이시며 2021년 유네스코 세계 기념 인물로 선정되신 성 김대건 신부님과 사랑과 열정으로 양들을 찾아다니며 성사를 통해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고 마침내 길 위의 순교자가 되신 가경자 최양업 신부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길잡이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대림 1주일부터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을 살아갑니다. 죄로 인해 단절된 하느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희년의 삶을 살아가며, 평신도로서 본래 우리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깨닫고 그분과 함께 제자리를 찾는 은총의 희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멈추어진 <교구청 신축사업>에 적극적이며 자율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교구청 신축 공사가 다시 시작되었을 때 언제나처럼 어려울 때 뭉치고 하나 되어 풀어 나가는, 우리의 일치된 힘으로 멋진 교구청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하며, 오늘 평신도 주일에 교우분들께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이 가득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균철 바오로 | 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제 1 독 서	지혜 6,12-16
화 답 송	◎ 주님, 저의 하느님,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하나이다.
제 2 독 서	1테살 4,13-18 또는 4,13-14
복 음	마태 25,1-13

주일 진례



창조 이야기의 종합

김영선 루시아 수녀 / 광주가톨릭대학교

우리는 여전히 태초에 창조된 아름다운 낙원에 있습니다. 이 낙원을 떠나기 전에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장면들을 한 번 종합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는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창조 이야기가 있으며, 두 이야기는 여러 면에서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두 개의 창조 이야기 가운데 하나만 선택하지 않고 두 개의 창조 이야기를 나란히 배열해 놓았을까요? 만약 하나의 창조 이야기만 있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많은 이들이 성경이 말하는 글자 그대로 세상이 창조되었다고 믿으려 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성경은 권위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성경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창조 이야기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성경의 창조 이야기를 읽을 때 그것을 상징적으로 이해해야 함을 알려줍니다.

두 이야기 모두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본래 그 세상은 질서 있고, 조화로우며, 아름다운 낙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창세기 첫 두 장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 외에도 예언서와 시편, 지혜 문학 안에서 창조에 관한 다양한 전승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대 근동의 창조 설화에 나오는 이야기와 비슷하게 야훼께서 용이나 레비아탄, 라합 등으로 대표되는 혼돈의 세력과 싸워 이기고 그 혼돈에서부터 창조를 이룩하신 것으로 설명하는 전승들이 있습니다(이사 27,1; 51,9-10; 시편 74,13-17; 욥 26,7-13 등 참조). 또 잠언 8,22-31에 의하면 지혜가 하느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였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언급된 다양한 창조에 대한 전승들을 글자 그대로 믿으려 든다면 우리는 혼란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의 언어들에 전달하고자 하는 신학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창조 이야기들 안에서 다음과 같은 신학적인 메시지들을 읽을 수 있습니다. 첫째, 세상은 하느님께서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고, 그 세상을 잘 돌보고 관리하도록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따라서 세상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착취하고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원래 하느님께서 세상에 부여하신 질서에 따라, 그 질서를 존중하면서 이용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둘째, 일과 쉼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하느님의 질서를 존중하는 한 방법이고, 하느님께서 태초에 우리에게 심어주신 거룩함을 유지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우리는 우리의 근원이신 하느님을 생각하고 우리에게 존재를 허락하신 분을 찬미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우리 존재의 뿌리와 재결합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셋째, 하느님께서서는 다른 피조물들 역시 인간과 마찬가지로 흙에서 빚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드신 이유는 인간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그를 도울 협력자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피조물들을 마음대로 지배하고 파괴할 것이 아니라 그들 역시 공동의 집인 지구의 생태 환경의 구성원이며, 그 환경을 지키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하느님께서서는 남자와 여자를 당신의 모습으로 창조하셨고, 그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곧 남자와 여자는 서로를 보완함으로써 완성을 이룰 수 있습니다. 곧, 양성의 적절한 보완을 통해서만이 하느님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 온전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창조는 인간이 다른 동료 인간을 지배하는 것을 허락하신 것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박재찬 안셀모 신부/ 본도 명상의 집

“많은 영적 서적이나 스승들이 ‘마음을 비우라!’라고 하는데, 도대체 마음을 비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려놓아라, 모든 것을 내려놓아라!” 하는데, 무엇을 내려놓으라는 말입니까?”

“한계를 지닌 연약한 인간이 완전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지닌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우리 마음 안에 그 사람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들고 싶어 그 사람이 좋아 하는 것,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합니다. 너무도 사랑하여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게 되고, 그 사람이 행복해하면 자신도 행복해집니다. 떨어져 있으면 만나고 싶고, 헤어지지 않고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 사랑하는 이들은 혼인을 하게 되죠. 그러나 결혼해서 살다 보면 서로에게 익숙해지고, 결혼 전에 했던 상대에 대한 자상한 배려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뜻에 따르기를 고집하거나 상대에 대한 지나친 기대치 때문에 실망하거나 심지어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더 깊이 서로를 알게 되고 자신의 뜻을 포기하는 방법과 자신을 희생하는 방법도 터득하게 됩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며 새롭게 사랑하는 법을 배워 나가 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뜻만을 고집하다 보면 안타깝게도 서로 헤어지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사랑을 배워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자신을 내려놓고 서로를 더 깊이 알아 가기 위해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인데, 정서적으로 미숙한 이들은 들을 줄 모르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경우는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갈 수 있다면 부부의 사랑은 하늘 사랑에 도달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남녀가 사랑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남녀가 서로를 신뢰하고 사랑하고 있을 때 자신의 뜻보다는 상대방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것처럼,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온 영혼으로 사랑하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비워지고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해 집니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많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심지어 당신의 목숨까지도 내어 주셨고, 지금도 빵과 포도주의 형상을 통해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할 때보다는 우리 자신의 뜻이 가득할 때가 더 많은 것을 체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바라는 대로, 자신의 원의 대로 하느님께서 그 뜻을 바꾸어 주시기를 기도할 때도 많습니다. 이는 주님을 자신의 뜻대로 뭔가를 이루어 주시는 마술사로 여기는 미숙한 신앙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나아가 진심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뜻’보다는 ‘하느님의 뜻’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바치는 주님의 기도에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라고 기도하듯이, 하느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모님께서 가브리엘 천사의 잉태에 대한 예고에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루카 1,38)라고 순종하셨듯이, 하느님의 뜻에 대한 순종은 우리의 마음을 비워내어 더 큰 사랑을 이루어 냅니다. 예수님께서 겐세마니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시며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마태 26,39)라고 순종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을 따르신 예수님의 순종은 온전한 ‘자기-비움(self-emptiness)’의 극치입니다. 이러한 철저한 자기-비움은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과 하나 되기 위한 길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 주님의 뜻을 찾으며 자신을 비워 나갈 때, 우리 마음은 더 큰 사랑으로 충만해 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가장 큰 예수님의 뜻인 사랑을 선택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하느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자기 보호 본능은 늘 이기적인 성향으로 기울어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하느님의 은총입니다. 성령 은총이 가득하셨기에 성모 마리아는 기꺼운 순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의 은총을 가득 받기 위해 우리는 늘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준비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 가고 자기중심적이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은 성령의 은총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며 그분의 사랑이 되어 갑니다.



본당순례

사회로 열린 지역의 교회 봉곡동성당

도경희 스텔라

신자들의 모금으로 설립된 봉곡동성당

봉곡동성당은 1977년 12월 8일 옥봉동본당에서 분리되어 신설되었다. 초대 주임으로 강영구 루치오 신부가 부임했다. 본당의 건립 및 축성식은 1979년 4월에 교구장 장병화 요셉 주교 집전으로 이루어졌으며, 교구에서 처음으로 신자들 모금으로 성전을 건립하였다. 주보성인은 로사리오의 모후다. 1981년에는 봉곡 신용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서민들의 생활을 도왔고, 1982년에 수녀원을 건립하여 올리베따노 성 베네딕도수녀회 분원이 설치되었다. 1993년에는 무료급식소 나눔의 집을 개소하였다.

하느님은 약한 이를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초기에는 평일미사, 레지오 마리아, 각종 모임은 열 평 정도의 전셋집 점포에서, 주일미사는 사오십 명이 옥봉동성당을 빌려서 봉헌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가난한 본당이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마태 8,20) 하신 예수님께 온전히 기댈 수 있었고, 형제자매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었기에 부족함이 없었다.(본당 25년사 중 강영구 신부 회고사에서 발췌)

자비로운 아버지의 집 성전 대보수 공사

성전은 사람이 되신 말씀이 가르쳐주신 하늘나라의 신비를 체험하는 장소다. 또한 우리의 삶이 교우들의 공동체 안에서 전례적으로 하느님과 만나는 곳이다. 주로 서민과 연로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은 본당. 세상살이 힘에 부치는 신자들의 희생과 사랑으로, 본당 설립 30주년이 되는 해에 많이 낡은 성전의 일부분을 헐고 필요한 부분은 새로 달아내서 성전을 보수하였다. 그리고 낡은 수녀원 자리에 주임 신부 사제관, 보좌 신부 사제관, 수녀원을 새로 지었다. 무료급식소 나눔의 집도 제대로 격을 갖춰 고치고 공중화장실도 새로 지어 2010년 10월 29일 교구장 안명옥 주교를 모시고 새 성전 축성식을 가졌다. 작지만 단아한 성전 바닥은 정화 능력이 뛰어난 깃털을 상징하는 잿빛 돌을 조선 가옥의 마루인 우물마루로 깔았고 제대 벽면은 바람이 불어도 스러지지 결코 부러지지 않는 갈대를 상징하는 나무판을 붙였다. 천정은 비둘기 모양이다. 천정 중심부는 여러 단으로 접어 올리고 가운데에는 판을 내려뜨려 조명 기구를 부착해서 성령께서 내려오시는 모양을 상징했다.

사랑이 가득한 나눔의 집

봉곡동성당의 자라린 나눔의 집은 1993년 9월에 문을 열었다.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태 25,40)는 그리스도의 복음 정신에 따라 가난한 이웃들이 겪고 있는 아픔과 기쁨, 좌절과 희망을 함께 나누는 마음으로 진주에서 최초로 무료급식을 시작했다. 매일(월~금) 중식 제공 등의 봉사활동으로 그들을 도우며 함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용하는 인원도 우리 지역에서 나눔의 집이 제일 많

다. 주로 노숙자, 장애인, 저소득층이 이용하지만 급식 대상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는 않는다. 나눔의 집에서는 담당 수녀와 봉사자 10여 명이 매일 200명이 넘는 인원의 점심을 준비한다. “점심시간이 되면 이곳을 찾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식판에 2인분의 음식을 담습니다. 왜 그런지 봤더니 받은 자신이 먹고 받은 거동이 불편하여 집에 있는 아내를 위해 비닐 봉지에 싸갔습니다. 무료급식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지만 우리가 이 일을 꼭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27년째 나눔의 집에서 무료급식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최진규 바오로 사목회장의 목소리에는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후원자들의 온정이 눈에 띄게 줄면서 무료급식이 언제 중단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진하게 묻어있다. 코로나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도 따뜻한 밥 한 끼를 먹기 위해 찾아오는 분들 안에 계시는 하느님을 좀 더 잘 모시고 싶어 정성 가득 담긴 도시락을 제공하고 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공중화장실과 샤워실

성당의 담장과 대문을 없애고 이웃사람과 동네를 향한 소통의 장이 된 성당 마당! 그 한쪽에 새로 지은 공중화장실이 있다. 오일장이 서는 정겨운 서부시장 상인과 장꾼들, 시내버스·시외버스 정류장이 성당 바로 앞에 자리해서 들고나는 사람들과 나눔의 집을 이용하는 노숙자를 위한 공중화장실을 짓고 화장실 뒷면에는 벽천벽龕을 설치하여 분위기를 돋우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샤워실을 마련했다. 날마다 공중화장실과 샤워실을 청소하며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마태 22,39)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봉사자의 사랑과 희생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 나오고, 이 향기를 맡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모여들 것이다. 우리 이웃에 사는 여린 사람들과 소곤소곤 걸어가는 키 낮은 풀꽃 같은 봉곡동성당! 남을 어루만지려 애쓰며 사는 교우들의 그 아름다운 향기가 바람에 날리고 있다.



코로나19가 세상을 가두기 전인 올해 2월 다행히 첫영성체를 치를 수 있었다. 예쁜 어린이들이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지만, 안타깝게 그 뒤로 거리두기는 쉽사리 사라지지 않고 있다. 하루빨리 코로나 사태가 말끔히 끝나 푸드득 푸드득 성령의 힘찬 기운 가득 받으며 매일 공동체가 모여 맘 놓고 미사하고, 기도 바칠 날을 손꼽아 본다.



견진성사

일시: 11월 11일(수)
 장소: 칠암동성당
 집전: 교구장 배기현(콘스탄틴) 주교

본당사목방문

일시: 11월 12일(목)
 본당: 구암동/ 여좌동

교구/본당

2021학년도 신학교 지원자 수시 발표

(광주가톨릭대학교)
 일시: 11월 13일(금) 15:00

위원회/기관/단체

교구 평협 상임위원 하반기 연수

일시: 11월 13일(금)
 장소: 교구청
 문의: 교구 평협 055·249·7114

205차 ME주말

일시: 11월 13일(금) 19:00~15일(주일) 17:30
 2박 3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대상: 혼인한 지 3년 이상 된 부부
 문의: 한진우(미카엘)·문희숙(미카엘라) 부부
 010·9150·8738, 010·6281·7859

교구 마리아 사제운동 평신도 체나콜로 11월 기도 모임

일시: 11월 16일(월) 13:00~15:00
 장소: 교구청 1층 강당
 문의: 회장 010·9399·5454

교구 이주사목위원회 외국인 공동체 미사

영어 미사

창원: 주일 15:00/ 성산종합사회복지관
 진주: 주일 14:30/ 칠암동성당
 거제: 토요일 19:30/ 장평성당

베트남어 미사

창원: 주일 18:00/ 명서동성당
 진주: 주일 12:30/ 칠암동성당
 통영: 2, 4주(토) 19:30/ 대건성당
 거제: 1, 3주(토) 19:30/ 국산공소

동티모르 미사

통영: 3주(토) 20:30/ 태평동성당
 거제: 3주(토) 22:30/ 국산공소
 진영: 3주(주일) 17:30/ 진영성당
 문의: 창원이주민센터 055·275·8203

수도회

나자렛예수수녀회 피정 및 교육

피정: 개인 또는 20명 이내 단체(말씀묵상 피정, 전례피정)

교육: 첫영성체 교리 교육, 실천 교리 교육,
 전례봉사자 교육
 문의: 010·2116·4903

재속프란치스코형제회 지원자 모집

성프란치스코의 가르침과 영성에 따라 예수님의 복음 말씀을 실천하고자 교황청이 인준한 회칙과 회헌으로 서약생활을 하는 공동체

대상: 만55세 이하의 세례 받은 신자
 문의: 봉사자 010·5230·1420,
 서기담당 010·5911·8792

예수성심전교수녀회 '마음의 길' 2박 3일 피정

일시: 11월 27일(금) 19:30~29일(주일) 13:00
 장소: 부산 성심영성센터
 주제: 대림, 오시는 주님을 기다림
 대상: 40세 미만 미혼여성
 문의: 010·4386·3103

기타

제27차 해외선교사교육(2021년)

일시: 2021년 1월 11일(월)~2월 4일(목)
 장소: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선교센터 (서울 성북구)
 대상: 해외선교를 준비하는 평신도, 수도자, 성직자, 양성담당자
 문의: 해외선교사교육협의회 02·953·0613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시	장소	문의	비고
한국 외방 선교 수녀회	11월 15일(주일) 14:00	부산 부곡동 본원	010·9353·1773	수도생활과 해외선교에 관심있는 미혼여성

<p>신세계 피부비뇨기과 피부질환 / 비뇨기질환 · 수술 / 전립선암 검진 진주시 동진로 172 세원빌딩 3층 (자유시장 사거리) 원장 김인구 베네딕토 055,757,9888~9</p>	<p>제주성지순례 3박 4일 28만원 성지 7개, 신부님 동행, 각 지역 공항 출발, 특2급 호텔 마르코 투어 010-5150-2625</p>	<p>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팔용동) 구자롱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p> 	<p>Enjoy your life AV Team (주)AV팀 Since 2005~ avteam.co.kr 음향, 영상 시스템 설계/ 시공/ 방문 점검 및 컨설팅 김지훈 바오로 010-3243-5655</p>
<p>마산 예경요양병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마산 예경병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토 011-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p>	<p>가톨릭마산 교구보 배너 광고 신청받습니다 ■문의: 미디어국 055)249-7072</p>	<p>SM 수맥홍(홍)침대 주보 지참 교우 우대 거실 황토소파 평화방송·신문 광고 申 1588-5335</p>	



기억할 선종 사제
최동오(아타나시오) 신부
2009년 11월 9일



기억할 선종 사제
김병운(라이문도) 신부
1998년 11월 13일

故 김병운 라이문도 신부 22주기 기일미사

일시: 11월 13일(금) 11:00
장소: 고성 이화공원묘원
문의: 남경철 신부 010·9514·0825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 운동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 9시 주모경 바치기
2019. 12. 1.~ 2020. 11. 28.



교구 성폭력 피해 접수처

우편: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성폭력 피해 접수처 앞 (우 51727)
E-mail: solace@cathms.or.kr
문의: 055·249·7003/ 7007

유사종교 상담 및 피해사례 접수처

E-mail: samok3@cathms.or.kr
문의: 사목국 055·242·6776

삼계본당 제9대 사목협의회 개편

사목협의회장: 주성(알렉산델)
사목협의회부회장(남성): 이동해(베드로)
사목협의회부회장(여성): 김성아(비비안나)
총무분과위원장: 김동언(안셀모)
재경분과위원장: 옥현철(빈첸시오)
전례분과위원장: 허미영(가타리나)
선교분과위원장: 윤정(레지나)
교육홍보분과위원장: 이상록(사무엘)
구역분과위원장: 한정희(테클라)
사회복지분과위원장: 박명희(베로니카)
청소년분과위원장: 이승준(요한 보스코)
시설관리분과위원장: 윤영복(유스티노)

덕산동본당 사무장 모집

인원: 사무원 1명
대상: 세례받은 지 3년이상 된 교우로,
사무행정, 회계업무, 특히 PC사용이
능하신 분 우대
제출서류: ①응시원서(덕산동성당 홈페이지 내
'계시판모음-본당자료실'에서 다운로
드), ②교적사본, ③ 본당 주임 신
부 확인서(덕산동성당 홈페이지 내
'계시판모음-본당자료실'에서 다운로드)
접수: 11월 15일(주일) 도착분에 한함
우편, E-메일, 직접방문 접수
문의: 사무실 055·542·8416
※ 자세한 사항은 덕산동본당(<http://ds.cathms.kr>)
홈페이지 참조

로댐의집 취사원 채용 공고

채용분야: 취사원 1명
접수: 11월 9일(월)~23일(월)까지,
전자우편 및 방문접수 가능
문의: 055·292·4747
▶구체적 사항은 로댐의집 홈페이지 참조

위령의 날 교구 합동 위령미사



위령의 날(11월 2일)을 맞아 교구 선종 사제와 교구민을 위한 합동 위령미사가 봉헌되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올해 교구 합동 위령미사는 각 본당에서 따로 거행되었다. 교구청 사제와 직원 그리고 평신도 대표들은 고성성당에서 총대리 최봉원 야고보 신부의 주례로 봉헌하였다.

여성 지적장애인 핸드벨 연주단 소리샘벨콰이어 정기연주회 개최

사회복지법인 천주교마산교구사회복지회 사랑의집(원장: 김일주 요한비안네) 소속 여성 지적장애인 핸드벨 소리샘벨콰이어(지휘: 백강희)가 10월 23일 마산 3.15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제2회 소리샘벨콰이어 정기연주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정기연주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 장애인문화예술원이 후원하는 2020년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어 장애인의 문화예술 창작 활성화 및 향유 기회 확대 취지로 마련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한차례 연기된 이번 연주회에서 소리샘벨콰이어는 천상의 소리로 관객과 호흡하며 지적·발달장애인의 음악적 한계를 벗어나는 공연으로 많은 이들에게 기립박수를 받았다.

매주 5회 이상 연습에 매진하며 완성한 신곡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Serenade to spring)'는 테너 진형운, 소프라노 황성아, 아베크 앙상블과 함께 아름다운 하모니로 감동을 안겨주었다.



소리샘벨콰이어는 여성 지적장애인 11명으로 구성되어 2010년 창단 이후 의령 사랑의집에서 개최하는 가을 숲속 음악회에서 매년 창작발표회를 가지며 다양한 분야의 아티스트와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을 마련해오고 있다. 창단 이후 130회 이상의 외부 초청공연, 재능기부 공연을 다니며 장애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공연문의: 사랑의집 055·572·8101, 010·8511·4047 ▶ 후원계좌: 농협(사랑의집) 803089-51-017934

